

교회소식

- **살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일부이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아직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 재개에 관한 당회의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 **교육부**
 - Sunday School Bible Quiz: Book of Luke
 - 6/27/20: 5:00 via Zoom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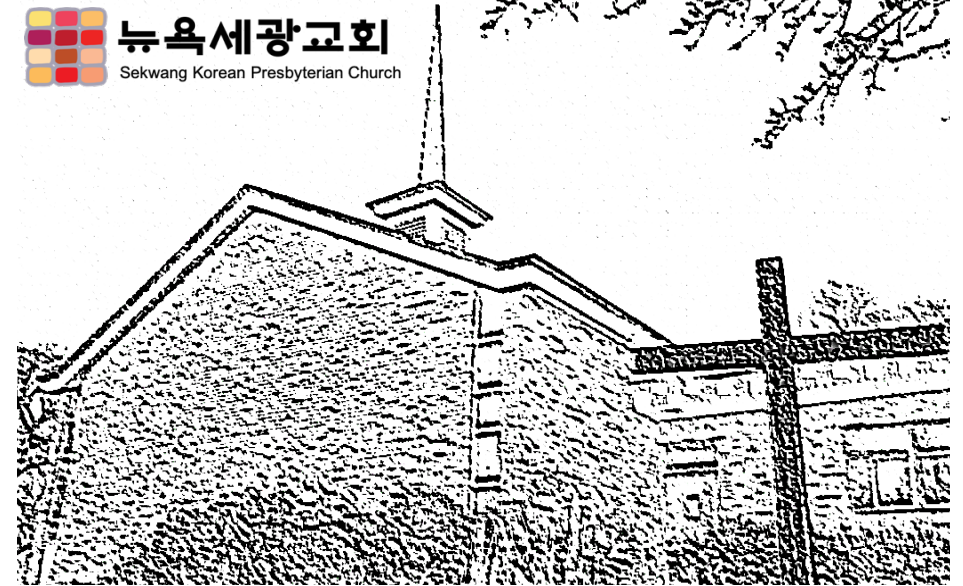
6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임미숙 집사 (시 89:1-4, 15-18)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24호

2020년 6월 21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TBA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Zoom]
새가족 모임	TBA
구역 모임	TB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20장(통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 3, 4절)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대표기도 Prayer	시편 86:1-10, 16-17 임대영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6:5-15 Matthew 6:5-15
설교 Sermon	“오늘날 우리에게”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1, 4절)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Luke 15:17-24 Leader
Sermon	“Be Like Our Father”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진짜 상급 마태복음 6:1-6; 16-18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의롭고 선한 일일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은혜의 통로여서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모르고 사람에게 보여 의롭게 여겨지는 것을 상급 삼으면 진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제는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고 돌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제하는 일의 진짜 상급은 가난한 사람이 진자로 도움을 얻고 약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뤄집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상급을 모르면 사람에게 보여진 우쭐함을 상급 삼습니다. 자기가 구제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은 늘 비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제 도움이 될까 궁리하고 될 때까지 애쓰기 보다는 보여주기 식 구제로 만족합니다.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일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이 되려면 드러나야 할 때가 있고, 모범이 되기 위해 드러나야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라도 자랑하려는 마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드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지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더구나 구제에 열매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섬김으로도 이웃이 잘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진짜 상급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증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같은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건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남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상급 삼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하여 응답 받는 진짜 상급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차라리 골방에 들어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 기도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을 대표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한 기도가 모범이 되기도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기도할 때에도 그게 알려지지 원하는 마음이, 남이 아니어도 스스로 대견히 여기려는 마음이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든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많은 이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은밀히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구제와 기도에서 진짜 상급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주님께 섬기고 모신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십니다(마 25장).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